

직간접 고용효과 1만2천명...한국 제조업 활력 회복 견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착공 의미와 과제

빛그린산단 인프라 구축·근로자 복지 혜택 기대 노동계 소통 등 국회 계류 지원 특별법 통과 시급

지역 노사 상생형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 자동차 공장 건립이 시작되면서 사업이 본격화했다.

이는 지역의 부족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비용·저효율'이라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개선해낼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 의미가 크다.

특히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인력채용 및 빛그린산단 내 부품 클러스터들이 조

성될 예정으로 직간접 고용효과가 1만2천여명에 달해 한국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광주형일자리는 노사상생과 사회대타협을 기치로 내걸고 있어 앞으로 노동계와의 협력 및 지원 특별법 통과가 과제로 남아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게 될 빛그린산단에는 근로자를

위한 주거단지과 생활기반 인프라도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광주형일자리'는 반값 연봉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취지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증하는 사업인 만큼 근로자를 위한 복지혜택이 주목된다.

대부분 공장 용지로 쓰이는 빛그린산단에는 부지가 없어 인근 부지를 매입해 내년부터 행복·임대 주택(800세대 규모) 건립에 들어간다.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 강당, 일자리 센터, 주거·편의시설을 갖춘 노사 동반지원센터는 내년 초 설계에 들어가 2022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입주 기업의 종사자를 위한 직장어린이집·개발형 체육관은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2021년 완공 예정이다. 서해안고

속도로와 광주 권역에서 빛그린산단으로 진입하는 도로 공사도 내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

시는 공장 건립과 함께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않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관련 예산으로 20억원,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어린이집 건립비 50억원만 확보된 상태다.

지역 노동계는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원칙이 있는 만큼 누적생산 35만대 달성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을 5년간 유예기로 하는 등 대승적인 결정도 내렸다.

그러나 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 출범 이후 노동계의 요구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는 등 끝내 기공식

불참으로 이어져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노동계와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광주형일자리' 본래 취지에 빛겨나가 노사 상생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또한 글로벌모터스가 노동계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에 계류중인 광주형일자리 지원근거가 담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급하다.

특별법에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행정·재정적인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직접 영리 법인에 출연

·출자할 수 있도록 해 광주시가 합작법인에 투자 지원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이용섭 시장은 "오늘 기공식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노동계가 불참해 참으로 안타깝다"며 "앞으로 보다 낮은 자세로 지역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욱 진정성 있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 노사상생의 일자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회적화합이 지역산업 생태계에 안정적으로 이어져 지역사회가 체감하기까지는 크고 작은 과제가 남아 있어 광주지역사회가 선도적 책임자로서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이기자

'블루 이코노미' 본격화...전남 도약 발판 마련

김지사 송년 기자회견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올 한 해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실현 본격화로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송년 기자회견을 열어 8대 분야별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전남도는 올해 정도 새천년을 밝힐 새로운 비전으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선포, 풍부한 청정 자원과 찬란한 역사·문화자원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환경해경제의 중심축 도약 발판을 놓았다.

비전 실현을 뒷받침할 SOC 국고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여수 화태-백야, 신안 압해-목포 달리도-해남 화원 연륙·연도교를 비롯해 목포-보성 남해안 철도 전철화 확정, 송정역-목포역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 광양항을 2030년 세계 10대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 등 해묵은 SOC의 확충 전기를 마련했다.

미래 생명산업인 친환경 농수산업의 새로운 발전 모델도 구축했다.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유망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예산 확보, 국립난대수목원 원도 적격 판정, 청년창업과 수출 중심의 고품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전국 최초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확정, 어촌뉴딜300 사업 전국 최다 선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관광객 6천만명 시대 기반을 마련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제1회 국가 섬의 날을 개최했고 신안 천사대교, 영광-무안 칠산대교, 목포 해상케이블카에 이어 2020년 여수-고흥 4개 연륙·연도교가 개통한다. 여수 경도진입도로 국비 확보로 해양관광단지를 완공을 5년 앞당기게 됐다.

미래 전략산업 육성 역시 힘을 쏟았다. 한전공대 유치, 나주 혁신산단과 목포 대양산단 등 에너지산업융합단지 지정, 나주 일원 에너지산업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국가종합 비행성능시험장과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착공, 국가 면역치료 혁신플랫폼 구축, 국립심



김영록 전남지사가 26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2019년 송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혈관센터 설립 예산 확보 등 성과를 거뒀다.

광역 지자체 간 상생협력과 도내 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했다. 광주, 서울, 부산, 경남, 경북과 손을 맞잡고 지방인구 감소와 균형발전, 친환경 농산물 판매 등 협력을 강화했다. 동부권 통합정사는 중

합 소통·문화 공간으로 2022년 9월 완공 예정이다.

김 지사는 "국고예산 7조원, 전남예산 8조원은 전략산업 육성, 관광 인프라 확충, 농수산업 경쟁력 확보, 맞춤형 복지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대안신당, 29일 광주시당 창당대회 개최

시장위원장에 최경환 의원 선출...제3정치세력 통합 세몰이

대안신당은 29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광주에서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

창당대회에는 천정배·장병완·최경환 의원과 총선 출마자인 김성환, 김명진 예비후보가 참석하고, 당원·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창당대회에서는 최경환 의원(북구)이 광주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대안신당 조직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돌며 창당준비에 박차를 가해왔고 현재 대안신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다.

대안신당은 창당의 목표를 제3정치세력의 결집과 통합을 통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제3정치세력의 통합을 위한 밑알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대안신당은 지난 20일 서울시장 창당대회를 개최했고 27일 부산, 29일 광주에 이어 경기, 전남, 전북, 경북 등 각 시도당 창당대회를 완료하고 1월12일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안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김대이기자

해남에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들어선다

농식품부 공모서 '한빛들' 선정...딸기 생산 동남아 등 수출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공모사업에 해남 한빛들 농업회사법인(대표 김대민)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은 ICT 융복합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 보급을 통해 시설원에 농산물 수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공모에 선정된 해남 한빛들 영농조합 법인은 34억원(국비 6억8천만원, 지방비 10억2천만원, 융자 10억2천만원, 자담 6억8천만원)을 들여 해남 산이면 덕호리 일원에 ICT 융복합기술이 적용된 온실과 축적된 환경 제어 기술을 갖춘 수출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한다. 딸기를

생산해 동남아 등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홍석봉 친환경농업과장은 "공모사업에 해남 한빛들 농업회사법인(대표 김대민)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은 ICT 융복합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 보급을 통해 시설원에 농산물 수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공모에 선정된 해남 한빛들 영농조합 법인은 34억원(국비 6억8천만원, 지방비 10억2천만원, 융자 10억2천만원, 자담 6억8천만원)을 들여 해남 산이면 덕호리 일원에 ICT 융복합기술이 적용된 온실과 축적된 환경 제어 기술을 갖춘 수출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한다. 딸기를

도는 시설원에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노동력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출전문 스마트팜을 고품(홍양영농조합법인)과 강진(씨너스농업회사법인)에 신축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채만기자

광주 '스마트 농업교육관' 내년 건립 30억 들여 강의실·북카페 등 갖춰

광주지역 농업인 등에게 다양한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교육관'이 내년에 건립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스마트 농업교육관은 농촌진흥사업 변화에 대응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교

육 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육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선다.

총사업비는 30억원이며 지상 2층, 연면적 999.48㎡ 규모다. 특히 13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중

·소 강의실과 함께 교육생 토론, 연구 등이 가능한 분임토의실, 타 지역에서 방문한 농업인·도시민들의 배움과 만남의 장이 될 대형 북카페 등을 갖춘 복합교육공간으로 기존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조

성될 예정이다.

시는 설계사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지난 5월 설계용역사를 선정하고,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해 용역사와 관계 부서 간 4차례 설계보고회를 열고 수시 업무협의를 해왔다.

내년 1월 시공자를 선정하고 2월 착공해 7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김종민기자

매매

영광테마파크

(구 영광청소년수련원)

- 대 지: 1만여평
- 건축: 15동(대강당,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
- 지 목: 학교용지, 잡종지, 전·답, 논밭매장
- 매매가: 50억원
- 임 대: 2억원, 월1500만

010.2488.6214 (신영순 공인중개사)